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Sir Richard J. Roberts 교수 초청강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AST Prestige Workshop

2017년 9월 7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GMO-노벨상 수상자에게 묻다

(Nobel Laureates Pro-GMO Campaign)

고려대학교 초청강연

Korea University Lecture

2017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강당 (자연계캠퍼스)

노벨상으로 가는 길

(The Path to the Nobel Prize)

후원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www.foodsecurity.or.kr

Sir Richard J. Roberts 교수

Sir Richard J. Roberts는 199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 Northeastern대학 교수로 2016년 7월 발표된 정밀농업(GMO)을 옹호하는 노벨상수상자 공개서한을 주도한 분이다. 현재 노벨수상자 Pro-GMO 캠페인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upportprecisionagriculture.org/>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생산과 이용이 시작된지 20년을 넘고 있으며 전 세계 콩 재배면적의 78%, 면화 재배면적의 64%, 옥수수 재배면적의 33% (2016년 기준)에서 생명공학 신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일부 반GMO단체들의 반대운동으로 안전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버츠 교수는 2016년 7월 10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뜻을 모아 정밀농업(GMO)을 옹호하는 노벨상수상자 공개서한 (Laureates Letter Supporting Precision Agriculture (GMO))을 발표했다.

공개서한은 유엔 식량농업계획이 인구의 증가로 2050년에는 세계 식량, 사료, 섬유의 생산이 지금의 약 2배로 늘어나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그린피스를 비롯한 신식물육종 반대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생명공학에 의한 농업혁신을 거부하고, 생명공학의 위험, 이득, 영향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공적으로 승인된 포장시험을 훼손하고 연구과제들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공개서한은 반GMO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생명공학 작물과 식품, 특히 골든라이스 반대운동을 중지하기를 요구하고, 세계 각 나라 정부는 그린피스의 반대운동을 배척하고,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그린피스 활동을 막고 농민들이 현대 생물학의 모든 도구들, 특히 생명공학으로 개량된 종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기를 요청했다. 과학적 데이터와 상반되는 감상과 신조로 반대를 일삼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야 이러한 행동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공개서한을 마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OECD국가들 중에서 최하위(24%)로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특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콩과 옥수수의 90% 이상이 생명공학 신제품이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단됨으로 수입을 허가한 식량에 대해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국가 식량수급을 어렵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로버츠 교수의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GMO운동이 자제되고 과학에 근거한 올바른 이해로 GMO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